

남원시, 국비 확보 행정력 집중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 취임

최경식 시장,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 만나 지원 적극 건의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경식 시장이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을 만나 문화와 미래산업의 도시 남원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2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부처예산안에 일부 및 미반영된 내년도 국가예산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또한 특별교부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잇달아 방문, 남원시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과 현안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내년에도 정부의 건전재정 예산운용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시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앙부



최경식 남원시장이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을 만나 문화와 미래산업의 도시 남원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처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와 미래산업의 도시 남원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예산삭감 방지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라적으로 대응하고, 정

부안 제출 이후 국회 단계까지도 전 직원들과 마지막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레일크루즈 '해랑' 남원 뜬다

국내 유일 최고 관광열차... 9월까지 전국일주 코스 총 25회 운영

남원시는 '태양(해)과 함께(랑)' 전국을 유람하는 국내 유일 최고의 관광열차인 레일크루즈 '해랑'이 7월 2일부터 남원역에 멈춘다고 밝혔다.

해랑 열차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초호화 여행 상품을 위해 초고가 최고급 서비스의 유람선(크루즈)과 같이 만들어진 레일크루즈 관광열차로, 이번에 남원에 뜨는

코스는 해랑의 정규코스 중 전국 일주 2박3일 코스인 서울-남원-순천-부산-경주-동해까지 운영되며, 가격은 371만원(2인기준)~427만원(4인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해랑 남원 운영은 7월 2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마다 주 2회 운영되며, 9월까지 총 25회 정도에 걸쳐 2,000여명이 남원을 방문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남원 코스는 남원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전국 일주 코스인 2박3일 코스와 비강스 코스로 분류되어 진행, 중식(남원정식), 광한투원, 김병종미술관, 아담원 등을 방문하는 등 탑승부터 내릴 때까지 숙박과 식사, 관광지 관람, 이벤트 등을 윈스톱 차별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그동안 코레일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위해 국악을 테마로 한 국악 와인열차, 자전거 전용열차 에코레일, 재래시장을 연계한 팔도장터 등 꾸준한 열차 상품을 운영하면서 철도관광상품을 활성화해 왔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3월과 6월에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2024년 여행가는 달과 연계, 인월달오름마을 체험과 시립 김병종미술관 등 우리 지역의 숨겨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아트투어 상품을 성황리에 운영했다"며, "호응에 따라 앞으로도 이색적인 관광상품 등을 개발, 철도연계 관광상품으로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시장은 "디지털관광주민증과 연계한 관광형 생활인구 유입에도 심혈을 기울여 남원이 가진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지로서의 최적지임을 널리 알리는 등 1,000만 관광객 유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양(해)과 함께(랑)' 전국을 유람하는 국내 유일 최고의 관광열차인 레일크루즈 '해랑'이 7월 2일부터 남원역에 멈춘다.

"민선 8기 후반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남원시 부시장으로 민선식 전 북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이 지난 1일 취임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민선식 부시장은 부안이 고향으로 2003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전북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미래비전담당, 기획담당,



행정심판담당 등을 역임하고, 2018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로,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 부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의 후반기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5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상반기 신속집행 '도내 2위'

순창군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 결과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도내 2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2일 군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3,567억원 중 1,948억원을 집행해 54.61%의 집행률로 전북 14개 시군 중 전체 2위, 군 단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신속집행 평가는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목표 대비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재정지출을 유도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724억원 대비 841억원을 집행, 116.14%의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군은 △대규모 투자사업 공정 및 집행 현황 상시 관리,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 수시 개최, △사업별 집행 여력 최대 발굴 등 상



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신속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군은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부서 및 계약 자금, 지출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긴급인할, 선급금 집행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우수 군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성과는 전 공직자가 신속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집행률을 제고해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효율성 증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스마트 곤충생산 시설 시범 조성 추가신청

남원시는 미래신성장 산업인 곤충사육산업을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선정, 적극 지원하는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의 추가신청 공모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곤충사육을 신규로 희망하는 농가에 300㎡(100평) 곤충사육사육사육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청 과정에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각종 회의 및 유관기관 안내와 남원시 농생명 바이오(곤충산업) 인력양성 교육을 수료한 농가에게도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으로,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곤충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악성민원 사전 대응교육 진행

순창군은 지난 1일 3층 대회의실에서 군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악성민원 사전 대응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항의성 악성·고질 민원에 의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신체의·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검사 출신 변호사인 신현성 강사는 폭언·폭행·협박·성희롱·업무방해와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특이민원에 대해 풍부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형별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특히, 악성민원에 대해 불만민원과 구별하고 응대하는 전략, 분야별 대처방식 등에 대해 강사가 공직에 몸담은 동안 겪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 강의를 펼쳐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출생 축하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임실군이 저출생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의 소중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7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등 기본정보, 뒷면은 아기의 태몽과 몸무게, 키, 혈액형, 엄마·아빠의 소망 등이 기재된다.

발급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3.7.1. 이후 출생) 아기로 아기의 부 또는 모가 다문화교류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15일 이내 축하 카드와 함께 각 가정에 등기 우편으로 전달된다. /임실=진총명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